한마음 원리로 과학 문명 분석하다

한마음과학원, 22~23일 수련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서 진행

물질계와 정신계는 하나 강조
의학 · 사회과학 등 분야별 발표
"한마음의 원리, 인류행복 증진"


한마음과학원은 7월 22~23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현대 과학 기술 분야를 한마음의 원리로 연구한 성과를 발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대 과학기술 분야를 한마음의 원리로 연구한 성과를 발표,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7월 22~23일 1박 2일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련회에서 한마음과학원은 현대 과학 문명 분야를 한마음의 원리로 설명하고 각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한마음의 원리는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닌 하나로 돌아가는 진리를 말한다. 현대 과학 문명이 고도화 되고 색계(色界)의 기본은 물질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신계의 원리와 작용을 먼저 알아야 생명을 위한 완전한 과학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발제는 각 팀 별로 △한마음법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오공의 철학적 조명과 현대적 실천 방안 △한마음 관점에서 바라본 생명현상 △인체 내 공생 미생물 그 실체와 작용 △한마음교육의 인간관과 목적 △플라톤의 교육관에 비춰본 한마음 교육의 원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정진 시간 및 활성화 방안과 학술 대회 준비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공 사상'에 대해 한마음과학원 오공팀은 "기신론의 체상용 철학이 마음의 본질, 속성, 작용에 대한 정의를 체계적으로 조명했다면 오공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마음의 존재 원리를 공동체 관점에서 실천적으로 구체화하고 조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마음의 활동은 보살의 삶이다. 보살이 중생들과 함께 살면서 중생구제에 원을 세우고 바라밀행과 더불어 다양한 방편을 구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마음의 실현이다. 오공에서 한마음의 작용은 공용, 공생, 공식"이라고 말했다.

한마음과학원 식물팀은 "클래식 음악이나 긍정적인 언어가 식물의 성장 촉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된다"며 "관련해 선법가와 큰스님 법문이 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식물도 불성이 있고 마음으로 통신된다는 대행 선사의 법문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보고했다.

의학팀은 "모든 학문 분야의 해답이 대행 선사의 법문 '허공을 걷는 길'에 들어 있다. 해답은 알지만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실천에 기인한다"며 "법문을 기초로 심성의학의 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과 관련한 대행 선사의 법문은 의학 분야 차세대 연구자들에게 질병 치료의 바른 길을 제시하며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음교육법문교재 개발팀은 "한마음의 원리가 일반사회 교육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교육학을 개발하는 것이 본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이 목표를 위해 1차적으로 대행선사의 법어집 〈허공을 걷는길〉에서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고 정리 중이다. 아울러 관련되는 일반 교육이론이나 사상들을 또한 정리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이자 한마음과학원장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행 선사께서는 과학원이라는 우주 마당에 각 분야 전문가이자 정신계 차원의 높은 능력자들을 이끌고 심어주셨다"며 "과학원 소임자들과 멤버들이 기반을 다지고 열심히 활동한 결과가 많이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스님은 "우주의 근본이자 만생명의 근본인 마음의 세계를, 각 전문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증명해 나가는 여러분과 함께 수련회를 열게 되어 기쁘다"며 "보이는 세계 보다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만을 향해 극도로 치닫고 있다. 이 가운데 마음과 물질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인류 행복을 증진 시키는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구도자이자 보살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련회에는 한마음과학원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장 혜솔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한마음과학원 지도법사 혜찬 스님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聯 "불교 위해 더욱 진력할 것"

하반기 추진사업 발표, 부산불교 100년사 정립 주요 내용



부산불교가 2017년 하반기 불교 분야의 수행 · 포교 · 연구 · 문화사업 관련 계획을 보고 및 발표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대성 · 이하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7월 26일 부산 삼광사 문화실 법당에서 7월 사찰순례법회를 열고 상반기 진행사업 및 하반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사찰 순례 △부산불교합창제 △대학생 불교동아리 지원 △자비나눔 △사명대사 추모대법회 △부산불교 100년사 연구 △ 팔관회 등을 계획하고 수행 · 포교 · 연구 · 문화 분야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부산불교 100년사〉 연구 지원을 위해 1년 사업 20여개 가운데 가장 많은 집행비 2,000만원을 지원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상반기 포교 사업으로 2017년 연등축제, 부산창작문예마당, 대학생 불교동아리 템플스테이 지원 등 20여개 사업에 총 사업비 8,000만원을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박대성 회장은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불교계가 앞장서서 어린이와 청소년포교 그리고 복지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머지않아 한국불교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인재불사에 관심을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종교지도자, 광복 72주년 평화기도회

8월 11일 기장 청량사서 개최

부산 6대종교 지도자들이 광복 72주년을 맞아 세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다.

공동선 실천을 위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 이하 공동선실천협의회)는 8월 11일 오전 11시 30분 기장 청량사서 '광복 72주년 평화 기도회'를 개최한다. 공동선실천협의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기도회를 열고 광복의 의미를 돌아보며 지구촌 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및 종교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6대 대표 종교 의식을 서로 존중하며 기도회를 진행하고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과 인사말 및 축사 등으로 의미를 되새긴다. 아울러 회장 정여 스님은 △남북정상회담 △남북 교류 여행 △비무장지대 남북 물물교환 장터 설치 △남북 문화 교류 △남북 역사학자 교류 △남북평화협정 체결로 대립과 상호 비방 해소 △남북 공동으로 북한 자원 개발 △북한에 생필품 공장 설립 등 13가지 평화통일 방안도 제시한다.

공동선실천협의회 평화 기도회에는 정여 스님을 비롯해 금어사 주지 월강 스님 및 김계춘 신부 등 불교 · 개신교 · 유교 · 원불교 · 천도교 · 천주교 지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학대 어린이 후원과 재즈 공연, 자비로 일심동체!

안국선원 교육관, 문화와 자비 함께한 특별 공간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바자회와 재즈 문화 공연이 7월 26~27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열렸다.

학대 피해 아동 후원을 위한 착한 바자회와 재즈 문화 강연이 함께 열리며 자비나눔과 문화 공연이 한 자리에서 어우러졌다.

사회복지법인 안국(이사장 천양자)은 7월 26~27일 안국선원 교육관 2층 소강의장에서 '학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 바자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안국선원 교육관(주지 석산)은 2번째 문화기획 천하태평 '라이브 재즈 강연 올 댓 재즈(All that Jazz)-재즈로의 여행'을 대강당에서 같은 날 1박 2일간 개최했다. 이날 부산 불교 신도 600여명이 학대 피해 아동 후원에 참여했으며 자비나눔 실천과 함께 문화 공연이 열려 특별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복순(69) 선향다회장은 "오늘 나눔으로 행복하고, 문화로 힐링이 된다"며 "지난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 MOU를 맺은 날 학대 관련 강연을 듣고 마음이 아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다. 불교 대사회 활동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정희(50) 씨는 "좋은 장소에 와서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고 자비 나눔과 문화로 힐링을 얻었다"며 "바자회 용품 품질도 뛰어나서 많은 자모님들의 후원 요청을 받아 함께 구매했다.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바자회 물품은 유아 아동 용품으로 의류 · 신발 · 악세사리 등이며, 알로&루 · 포래즈 · 알퐁소, 샤르반 등을 운영하는 유아동 기업 제로투세븐에서 후원했다. 아울러 물품이 일반 시중가보다 대폭 할인돼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후원에 동참할 수 있어 기뻐했다. 바자회 후원 성금은 사회복지법인 안국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전달되며 아동들의 보호 양육 및 심리 치료 후원에 사용된다. 사회복지법인 안국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6년 1월에 개소해 20여명의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했으며 현재 6명의 아동이 머물고 있다.

공연은 먼저 재즈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강연자는 잠바 오재이(Jamba O.J)로 애니메이션 영화 엔트리(Entry) 음악 감독 및 부산재즈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실력가다. 현재 울산 KBS 라디오 즐거운 음악여행에 고정 출연 중이다.

한편, 3번째 천하태평 공연은 8월 19일 오후 2시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열리며 속사포 랩퍼 아웃사이더를 만날 수 있다. 하성미 기자

노인요양시설 '자비원' 신재관 낙성

노인 30여명 추가 수용 가능해져



팔공총림 동화사 부설 동화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자비원'의 신관인 '신재관' 낙성식이 7월 21일 열렸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동화사 주지 효광스님(동화복지재단 이사장)과 국장 소임스님들, 강대식 대구 동구청장, 동구의회장, 동화사 신도회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신관 선재관은 연면적 약 71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프로그램실, 침실, 간호사실 등의 시설로 구성된다. 2009년 설립된 자비원은 선재관이 건립되면서 기존 50명에서 30명이 늘어난 총 80여명의 어르신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자비원 원장 덕유 스님은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비의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내 부모, 형제처럼 잘 보살피고 모시겠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 99%"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부가서비스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일정관리, 신도영가 기일 자동 알림,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의 다운로드 가능, 물품관리 등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현대불교신문
구독 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